

### 제3강 불교의 윤회와 인식

(1교시)

#### ◆윤회와 욕망

※학습목표: 윤회에 대한 이해를 더 정확히 한다.

####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불교적인가?

-달라이라마의 경우 그가 죽으면 다시 달라이라마로 태어난다. 이는 불교적 윤회가 아니다. 티베트의 샤머니즘 전통에 Bon-po가 있다. 이 Bon-po의 무속적인 면과 불교적인 것이 상호 결합된 것이다.

#### ▲서양인들은 윤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양인들에게 불교의 종교적 impact는 윤회관이다. 왜냐면 윤회라는 관념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유일무이한 마지막 기회가 아니게 된다.

-서양인들이 윤회를 믿음의 체계로서 이해한다. 동시에 생태적/환경적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윤회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윤회의 기원과 의미

-윤회는 불교 이전의 veda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윤회의 원인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인도사상과는 다른 특유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윤회의 원인을 제시했다.

-붓다는 윤회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 행위와 그 결과가 펼쳐질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회를 믿었을 때 여유가 생긴다. 기독교의 경우 이 생이 구원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삶에 절박하다.

#### ▲초기 동아시아에서의 윤회 문제

-중국인들은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에 대한 표현이다. 그들의 관념대로 한다면 죽은 영혼들을 조상제도 내에서 또 만난다. 그들에게 가족서열은 수직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윤회관념이 들어오면 모든 가족관계가 흔들린다.

#### ▲불교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필요 이상의 것들이 욕망의 문제가 된다.

-현대의 사람들은 본능이란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본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본능도 하나의 업이며 극복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어떻게 극복하는가?

-식욕: 신진대사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평소의 우리는 욕망의 과잉상태다. 불교는 명상 등의 수련을 통해서 욕망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의 자신을 읽어낸다. 그래서 멈출 수

있다.

-수면욕: 졸음을 일종의 욕망으로 본다. 불교에서는 이를 생물학적으로 보지 않고 졸음 자체를 즐기는 욕망으로 본다.

-성욕: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불교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본다.

(2교시)

## ◆불교의 인식

※학습목표: 불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살핀다.

### ▲불교에는 본질적 정신이 없는가?

- 본질적 정신이 있다. 다만 dogmatic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이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불교 경전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실상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조적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불경은 깨달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개체일 뿐이다. 불경은 깨달음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고, 깨달음 자체의 내용은 아니다.
- 불교는 언어가 실재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초기부터 해석이 열려 있게 된다.

### ▲일체유식(一切唯識)

- 유식은 산스크리트어로 Vijñaptā-mātra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식'은 Vijñaptā로 표상된 것을 말한다.
- 일체는 나를 포함한 외부 대상세계 전체가 아니라 경험이다. 또 유식은 인식하는 것이다. 즉 일체유식은 의식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경험된 인식 내용/식의 표상밖에 없다는 뜻이다.
- 우리는 절대로 자극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 그 해석된 것에 의한 결과가 반응으로 나온다. 그래서 동일한 자극에 각자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경험은 간접경험이다.

### ▲마음에 대한 불교의 분석

- 불교는 심층적인 것, 작용성, 대상에 따라 의식을 심·의·식으로 나눈다. 가장 심층적 의식은 8식이 심, 7식이 의, 안이비설신의 전 5식을 포함한 6식이 식으로 불린다.
- 전 5식은 감각기관에 의한 것으로 언어작용의 의식(6식)을 동반한다. 사유 활동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6식이므로 사유는 언어와 함께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8식으로, 이는 모든 과거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을 저장하는 곳이다(Alaya식). 8식은 업을 바탕으로 하며 이로부터 세계가 전개된다.
- 초기불교의 소박한 인식론에서는 감각대상인 경(境)과 경에 상응하는 감각기관인 근(根)이 만나서 식(識)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업과 개별적인 업으로부터 비롯된 구조인 심층의식, 제 8식의 활동으로부터 세계는 전개되고 이해된다.

### ▲미망(迷妄)

-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로 알고 놀랐다고 할 때, 새끼줄은 secondary code를 제공한 것이고 뱀을 떠올린 것은 나의 8식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뱀이 있으며, 그것을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와 대상의 구분이 8식의 시작이며, 이로서 미망이 생긴다. 즉 사아사법(似我似法)을 실아실법(實我實法)으로 생각한 것에서 미망, 미혹, 망념이 생긴다.

### ▲유식론과 관념론

-유식론이 극단적으로 외계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상의 실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내 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버클리의 관념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 \*참고자료



하일라스와 필로누스가 나눈 대화 세 마당

하일라스와 필로누스가 나눈 대화 세 마당, George Berkeley, 한석환역, 숭실대학교 출판부